

◆◆◆◆ 협회 소식 ◆◆◆◆

◆ 77년 가을세미나 개최—10.28~29

주제 : 현행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7年度本協會 秋季 세미나가 오는 10月 28~29日 兩日에 걸쳐 釜山 성분도 명상의 집에서 열리게 된다. 28日 午後 3時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연사의 主題發表가 있고 29日 오전 9時부터는 종합토의를 가진 후 11時부터는 「社會가 바라는 醫療人」을 제목으로 하여 座談會를 가지게 되는데 現地 各界인사가 참석한다.

세미나主題：現行醫療保險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演題 ① 酬價問題에 대하여

(서울산재병원 이승한원장)

② 事務管理에 대하여

(부산 메리놀병원 박병철원무과장)

◆ 행복한 가정운동 定期總會

10月 6日——분도회관에서

한국주교회의 산하 행복한 가정운동 협의회 77
년 정기총회가 10月 6日 全國代表委員과 관계자 3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분도회관에서 개최되
었다.

오전 11시 曹圭常회장(가톨릭醫大學長)의 개회
인사로 시작된 이번 總會에서는 총재 박토마주
교(春川敎區長)로부터 지난 6月 콜롬비아에서 개
최된 국제 가정생활증진협회 세계대회 參加報告
를 듣고 2차년 사업실적 보고와 3차년 사업계획
을 토의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3차년 主要事業
으로 ① 성직자세미나를 서울과 地方에서 개최
키로하는 한편 ② 各敎區委에 사 추천하는 지도원
3명씩을 中央에서 1週課程의 教育을 이수케 하
여 이들을 필드워커로서 각 구역에서 활용하여 자
연가족계획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 빌링스法 연수회—春川교육원서

춘천교구 가톨릭교육원에 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행복한 가정운동을 위한 연수회를 임종지신부지도로 열었다. 행복한 가정운동 지원원 27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리교육과 빌링스법에 의한 가족계획 등 행복한 가정운동을 통해 실제 체험에서 얻은 자료도 교환했다.

◆ 유수철 神父 善終

68~73年 本協會長 歷任

꾸르실로운동의 전국 지도신부이며 서울 신당동주임신부인 유수철(도미니꼬·60세)신부가 8월 29일 밤 9시 40분 명동 성도병원에서 숙환인 암으로 별세했다.

1943년 사제로 서품된 유신부는 34년간 서울 중립동보좌, 인천답동보좌, 대신학교교수, 서정리·서대문·혜화동주임, 서울대 교구 상서국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교구참사위원회를 거쳐 신당동주임, 사제공제회회장, 신학생 후원회지도 신부로 일해왔는데 1968년 3월부터 1973년 11월 까지 보가톨릭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었다.

◆◆◆◆◆ **호원법원** 소식 ◆◆◆◆◆

◆ 地域社會 総合醫學센타 起工

80년까지 完工計劃—CMC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김창렬신부)은 8월 31일 오후 4시 서울강남구반포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종합의학센타 신축기공식 및 축성식」을 가졌다.

아침부터 줄곧내린 호우 속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김수환 추기경 노기 남대주교등 고위성직자와 보사부차관 서울시부시장등 사회인사 및 많은 의료인등 3백여명이 참석, 국민의료의 일

의 을 담당할 지역사회 종합의학센타 신축기공을
축하했다.

강남구 반포동 491~2번지 3만4천여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세워질 종합의학 센터는 총공사비 1백10억원을 투입, 주건물인 병원을 비롯해 임상의학 연구소·의과대학 도서관·학생·간호원 기숙사·강당 등 7개의 건물과 운동장·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하1층 지상10층의 규모로 1차적으로 견립될
병원은 5백20개의 병상과 최신의료기구를 갖추
고 78년 말에 준공, 79년초에 개원 할 예정이다.
중앙의료원은 그 밖의 부대시설은 80년까지를
완공예정으로 잡고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永東 마스터플랜에 의해
전립되는 동센터는 앞으로 전국의 60여개 가톨
릭계 열 병원을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한편 가톨릭 醫大, 캠퍼스와 임상기초공동업구소
를 오는 79년 말까지 전립, 명실상부한 종합의학
센터로 세워진다.

이 날 가톨릭 중앙의료원 측이 발표한 경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① 1970년 여의도에 대지 2만평 구입.
 - ② 1974년 정부로부터 지역 사회 종합 의학 센터 전립에 대한 승인을 얻음.
 - ③ 서울시의 수도 인구 분산책에 의해 종합의료 센터 전립 장소를 영동으로 이전 계획
 - ④ 76년 서울시가 강남구 반포동 491번지 일대를, 종합의료 시설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대지 3만4천평 확보.
 - ⑤ 77년 4월 사업 시행 허가를 얻음.
 - ⑥ 77년 8월 31일 기공식을 갖고 1차로 병원 전립 기공.

◆ 裡里성모의원 移轉

새병동 건립 위해 부지 확보

이리 성모의원(원장 송크리스띠나수녀)이 도시계획으로 창인동 소재 舊병동이 헐리게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종암동 1가 53번지(전화3783)로

이전했다.

이리시 영등동 새 병원 신축시 까지 임시로 쓰게
될 이 병원은 연간 평 1백 28평의 3층건물인데 1
층은 의례 진료소로, 2층은 직원숙사로, 그리고
3층은 나환자 진료소로 각각 사용된다.

그런데 전남북일대 13개 정착장 주민들과 재가환자등 5천명의 나환자및 그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는 성모의원은 군산·이리시와 익산·익구군동 2개시 6개군에 나이등진료반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성모의원은 전주교구의 협조로 이리시 영동동에 이미 2천4백평의 새 병원 신축부지를 확보, 서독 미제레울과 서독 구라회 그리고 동정성모회본원등 3개단체의 의원으로 새 병동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의료계 소식 ◆◆◆◆

◆ 醫療保險受惠者 315萬名

保社部는 1일 현재 1종 醫療保險組合으로 1천 7백 69 사업장의 5백 5개組合을 인가함으로서 수 혜대 상자는 피보험자 1백 17만 5천 8백 49명, 피부 양자 1백 97만 3천 1백 91명으로 모두 3백 14만 9천 40 명으로 집계되었다.

의료보험 조합설립인가 현황

<77, 9, 1 현재>

조합사업장		피보험 대상자수(총괄)			
수	수	계	피보험자수	피부양자수	
계	505	1,769	3,149,040	1,175,849	1,973,191
서울	291	589	1,793,746	625,690	1,168,056
부산	72	76	394,324	169,137	229,187
경기	40	283	292,904	119,237	173,667
강원	18	42	76,332	20,110	56,222
충북	6	29	20,301	7,863	12,438
충남	17	53	72,383	30,214	42,169
전북	11	48	39,140	17,252	21,888
전남	10	65	46,708	16,320	30,388
경북	21	455	162,325	69,997	92,328
경남	19	129	250,877	104,029	146,848
제주					

KCHA 뉴우슬 ♦ ... ♦

이 가운데 工區組合은 1천 2백 1개 사업장의 19
개로 수혜대상자는 45만 3천 2백 79명) 피보험자 =
19만 9천 5백 94명, 피부양자 = 25만 3천 6백 85명) 이
다.

이들 組合을 규모별로 구분하면 1천명미만이 2백 25개 조합, 1천~2천명이 1백 36, 2천~3천명이 49, 3천~5천명이 55, 5천~1만명이 23, 1만~2만명이 9, 2만명 이상이 8개組合이다.

9월 1일 현재 全國 의료보험組合 설립현황은 別表와 같다.

◆ 醫協 금년도 研究課題 확정

—醫療保險事業— 田嶺社
—

醫協은 6월 77년도 조사연구사업의 방향과 테마를 확정했다.

이 같은 조사연구사업의 확정은 3일 개최된 醫協조사연구위원회의 결정이 실행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확정되었다.

확정된 연구사업의 테마는 ①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연구 ②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③ 의료수가에 관한 연구 ④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⑤ 의료법인설립 형태에 관한 연구 ⑥ 의학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 ⑦ 혈액수급대책 및 구급 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⑧ 의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⑨ 기업핵심에 관한 연구 등이다.

조사연구위원회는 이같은 연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각데마다 책임연구위원을 선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테마당 연구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 醫療保險판례 10種에 係

醫療保險組合 사용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등 모두 10종의 醫療保險과 관련된 경비 및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法人稅法, 상속세법등에 의해 면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保社部가 25일 조사한바에 의하면 被保險者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비롯해서 使用者 부담 保險

料額保険組合에 대한 보험료 이의의 부담금, 계
3자의 조합에 대한 기부금, 조합의 설립 및 부
동산등기와 재산취득, 조합의 토지 및 건축등에
대해서는 모두 免稅조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醫療保護업무처리 指針 4호制定

—1차 機關에 14종 手術허용—

保社部는 2일 醫療保護 업무처리 指針 제4호를 制定하여 1차 診療機關에서 14종의 간단한 手術을 하도록 허용하고 藥價算定은 醫療保險藥價基準을 준용청구토록 했으며 醫療保護費 지급 시의 源泉徵收를 明제시켰다.

保社部가 마련한 이 指針에 의하면 지금까지
1차診療機關에서는 應急患者 수술만을 허용했으
나 ① 肺부 良性腫瘍摘出술 ② 拔瓜術 ③ 단순
骨切캐스드 ④ 鼻骨골절교정술 ⑤ 外耳道이물 제
거술 ⑥ 鼓膜切開 ⑦ 上顎骨切절제술 ⑧ 편도선
절제술 ⑨ 포경수술(疾病을 동반하는 것) ⑩ 분
만시 회음열차봉합술 ⑪ 결막봉합술 ⑫ 결막결
석제거술 ⑬ 각막異物제거술 ⑭ 기타 異物제거
술등 入院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手術14종을 허
용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2차機關의 청구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만성병환자의 경우, 外來 一時投藥기간은 10일분까지 가능하되 9월1일以後 친료부터 醫療費계산을 첫4일간(종전2일)은 1일 4백원 5일 이후부터 10일까지는 1일 2백원, (종전 1백50원)으로 算定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藥價산정기준을 醫療保險藥價基準으로 준용케 했다.

이 指針에서 保社部는 또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라 7월1일 이후의 醫療費支給分 부터는 所得稅源泉徵收를 하지 않도록(의료비支給日기준) 조치했다.

또 9월1일 이후 진료비 請求分부터 入院진료비
10만원이상 또는 1일 평균 6천원이상(증전5천원)
인 경우로 醫療保護分科委의 査整기준을 인상조
정시키고 低所得者 2차機關 진료비가 1일 4백원
이하인 경우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27조에 의
거 철회 토록 했다

한편 同指針3號의 제812항規定에 따라 痘算科
目別 전용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對象者別의료
보호 비를 轉用집행 할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공
공의료시설(市道立病院, 保健所, 保護支所)의 의
료보호 입금은 당해시설에 대한 시설지원 및 운
영개선에 환원투자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
성 및 집행기관은 특별조치하도록 明示했다.

◆ 醫療法 시행령 종 改正令 공포

醫院의 病床數를 50개 까지 허용하고 있는것을
20개 미만으로 제한하여 病院의 病床數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기위한 醫療法시행령중 개정령이
16일자로 大統領令 제8649호로 공포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날 공포된同개정령은 8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개 이상의 病床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醫院은 오는 10월 31일까지 病院의 개설허가, 기타 시설의 보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保険환자 診療體系 제도화 촉구

综合医院古 呼 受容力五萬

保社部는 醫療保險환자 診療體系를 1차診療는
醫院급 의료기관에서, 2차診療는 病院급이상 의
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진료체계로 유도하고 있으
나 계속 保險患者들은 綜合病院으로 몰리고 있
어 서울市內 일부 綜合病院들은 1,2차로 구분되
는 진료체계가 확립될수 있도록 制度化해 줄 것
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市內 教育病院等 일부 綜合病院의 이같은 움직임은 醫療保險患者가 계속 종합병원으로만 몰리고 있어 곧 수용능력의 포화상태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함으로서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保社部는 이에 앞서 의료보험체제의 실시와 동시에 診療體系를 1,2차로 區分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組合定款에 1차 진료는 醫院급 의료기관에서 2차진료는 病院 또는 總合病院에

서 진료받도록 明文化시키고 피보험자 및 피부
양자로 하여금 定款上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시행되지 3개월여가 지난 현재 保險患者들은 계속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드는 현상을 빚고 있어 制度的 장치의 필요성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해결대책 강구를 요망하고 있는 이들 綜合病院
당국자들은 保險患者의 1, 2차 診療體系를 明文
化된 제도로 규제하여 醫院급 指定醫療機關에서
1차진료를 받고 病院 또는 綜合病院에서의 진료가
요망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醫院급 지정
의료기관의 2차診療의뢰에 의해 진료를 받게 하
는 제도화를 요망하고 있다.

◆ 醫療保險 是正建議

永登浦區醫師會는 9일 하오 8시 영도체파에서 全體理事會를 열고 요양기판지정 문제에 대해 새로 운 방도책을 강구해 줄 것등 의료보험 실시 과정에서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5개항에 달하는 건의문을 채택, 서울市醫師會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 날 채택된 건의문을 보면 ▲요양기관 지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도책 강구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험약가의 채조정요망 ▲청구서 작성지급업무의 간소화 ▲수가지불기일 염수 ▲의료보험 환환자에 학해서 의약분업제 실시 등 5개 항이다.

◆ 保険료價 문제점 改善建議

—分科學會院의 회서 —

醫協分科學會協議會는 지난 29일 개최된 醫療保險診療費價기준에 대한 세미나에서 各學會가 지적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종합, 保社部에 반영해 주도록 30일 醫協에 전의했다.

내科學會 등 17個學會에서 지적된 추가기준 개선점의 물자는 ① 누탁행위명의 추가 ② 행위의 세분화 및 분류제 조정 ③ 특수장비사용료 인정 ④ 용어 및 자구수정 ⑤ 입원환자 관리료 체감

KCHA 뉴우슬 ♦ ... ♦

제폐지 ⑥ 중환자관리로 인정 ⑦ 심야수술비 인정등이다.

◆ 醫療保護 의료비 所得稅면제

—藥價算定の 保險藥價—

보사부는 부가가치세 제외 실시에 따라 7월 1일 이후의 醫療費支給分부터는 醫療保護 지정 診療기관에 대해 所得稅 源泉징수를 부과하지 않도록 1일 각 市·道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醫療保護費의 청구 및 지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指定진료 기관에서의 藥價算定은 보사부장관이 결정, 告示하는 의료보험 酬價基準中 藥價基準을 準用하여 請求하도록 지시했으며 二次진료기관에서의 저소득자에 대한 外來진료비가 1일 4백원이 하일 경우에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의거 外來진료비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의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의료보호대상자別 醫療費의
상호 轉用은 의료보호업무처리지침 제3호의 제
八-2항에 明示된 대로 예산과목別 轉用承認權
者의 승인을 얻어 轉用집행 토토 했으며 市道立
병원·보건소·보건지소등 公共의료시설의 醫療
保護政策수입금은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지원 및 운
영개선에 환원투자되도록 각 地方自治團體의 예
산편성 및 집행기관은 특별조치하라고 아울러 시
달했다.

◆ 簡易收入計算書에 萬全을

—醫協 강령 要望—

醫協 韓格富회장은 4일 『全會員은 국가 稅政合理化정책에 적극협조, 잔이수입계산서 작성교부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담화문을 통해 촉구했다.

韓회장은 이 담화문을 통해 醫協이 의료기관에 대한 금전등록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醫療의 本質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지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이 같은 취지

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전희원은 간이수입계산서 작성의 성실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韓회장은 또 의료기판에 대한 금전등록기 설치 방침은 일반국민이 아직 의료의 本質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醫療人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전회원이 앞으로 더욱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醫療人像을 구현토록 힘쓸것도 요청했다.

◆ 올해 獻血 13萬 9百병

—작년의 倍—

올 들어 8월 말까지의 국내 혈량은 총 13만9백 3병(1병 3백 20cc)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만5천 1백 20병에 비해 1백 % 증가, 최근 들어 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혈액량은 8월 말까지의 전체 공혈량 17만5천3백 93병의 74.6%로 매 혈량은 4만4천4백 90병이다.

◆ 公務員·教員 의료보험

—78年下半期부터 실시—

보사부는 28일 공무원(국·공립교원포함)과 사립교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법안을 확정해 경제차관 회의에서 통과, 곧 시행령을 제정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실제 보험급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정규직과 임시직 공무원 54만3천여명, 부양가족 2백17만 2천여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일반직원 6만3천여명, 부양가족 25만4천여명 등 모두 3백3만4천2백70명으로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국회의원)은 제외됐다.

보험 요율은 4%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정부가 각각 2%씩 부담하고 사립 교원은 본인 2%, 정부 0.8%, 학교재단 1.2%씩 부담키보 해다

별사부는 이를위해 공무원 사립교원의 보험을

◆◆◆ KCHA 뉴우스

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체인 「의료법인관리공단」을 설치, ▲피보험자의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비용지급 ▲자산관리 ▲기타 피보험자를 위한 복지 사업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 派遣修鍊醫—285号配定

保社部는 전국 45개 修鍊病院으로부터 2백 85명의 修鍊醫를 차출, 제 12차 派遣修鍊醫로 市道 및 國立病院 등에 파견했다.

이번 12차 派遣수현의는 10월1일부터 78년3월 31일까지 6개월간 파견근무케 되는데 保社部는 京畿道에 25명을 비롯하여 江原29, 忠北24, 忠南30, 全北36, 全南47, 慶北31, 慶南42, 濟州7, 國立病院14명등 2백 85명을 배정, 파견했다.

◆ 地域計會 亞韓醫學碩士 設立—CMC

印調서정협력協力經濟日韓

韓日양국정부는 지난 29일 日本정부가 한국의 지역사회 종합의학센터의 설립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 협력 협정서에 조인했다.

이 날 조인식은 韓國측에서 윤하정 의무부차관
이 日本측에서 스노베주한일본대사가 협정에 서
명했다.

日本정부는 이조인으로 한국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영동에 건립하는 지역 사회 종합의학센터의 설립 지원을 위해 금년도분 2백 20만달라(日貨 6억엔 상당)를 의료기재로 무상지원 한다.

이 날 경제협력협정서 조인식에는 양국대표를 비롯 한국측에서 합태섭의무부 국제경제국장 박수길조약국장 金昌烈가톨릭중앙의료원장, 安容八의무원장, 曺圭常가톨릭醫大학장이 日本측에 선구마가이 공사가 각각 배석했다.

◆ “醫療保險 3개월” 문제점 分析

—保險實像과 定着세미나 —

醫協이 주최하고 痘協과 全國醫療保險協議會가
참여한 醫療保險의 實像과 定着方向 세미나가 7
일 오후 2시부터 무역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이 날 세미나에는 3개 단체에서 각각 각단체
의 입장에서 본 醫療保險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들이 발표되었다.

醫協을 대표해 醫協이 본 醫療保險을 발표한
張儀濂의 무이사는 이 날 세민나에서도 종전의 주
장처럼 保險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① 保險醫登錄制채택 ② 1차의원 2차 병원의 진료전
달체계 확립 ③ 보험수가의 현실화 ④ 진료비 청
구절차 서식간소화 ⑤ 보험약가의 현실화 ⑥ 별
도의 보험진료비 심사기구 설치 등을 쟁취하
했다.

또 의료보험조합협의회를 대표해 組合측이는 醫療保險을 발표한 嚴琦燮사무국장은 ① 중앙화된 진료비심사기구의 설치운영 ② 진료비청구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 ③ 보험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으로 「醫療保險士」 공인 ④ 부양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 약가기준의 보완, 정비 ⑤ 비자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발급 의무 및 정당한 이유없는 지정계약의 거부금지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조항 추가등을 요청했다.

한편 病協을 대표한 崔振學부회장은 病協측 입장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① 피보험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勞使간의 부담을 조정하여 受診率을 높이고 ② 보험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 각 의료기관의 실무자를 교육 업무능률 향상 ③ 보험의료의 진료체계개선 ④ 수가의 합리적 조정 ⑤ 病院산업육성책의 정책적 배려등을 요청하고 의료보험에 관한 제도적 발전책을 연구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